공동주택 거주 노인의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Environment of the Elderly in Apartment

전 은 정*
Jun, Eun-Jung

Abstract

This study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conditions to determine the overall status in the housing environment is to understand. To this end, the stage of elderly as a framework to target living consciousness, living space composition, housing Environment composition of elderly households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analyzes were employed. For this research is a survey conducted on senior citizens(over 60) in Busan, Kore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s; In the living consciousness, the elderly households showed high perception of dependency but the age of the elderly increases, depends on the parent to the child. Also depending on the aging of the elderly considered health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conditions. The requirements for living space composition, most respondents prefer to stay in the same place where they currently reside. Move into the new housing was also identified. It was recognized that elderly households not only required living in co-residential space with their families, but also the necessity for individual space. The home environments composition,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support services appears overall the elderly of stage. The age of the elderly increases, a strong demand for care and support service were identified. Health activities in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as age increased mainly done by the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has been identified that are important.

키워드 : 고령단계, 생활의식, 주거공간구성, 주거환경구성
Keywords : The Stage of Elderly, Living consciousness, Living space composition, Housing Environment composi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노인은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상실되고 신체적 약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활동범위가 제한되면서 많은 시간을 주거 내에서 지내게 된다. 따라서 노인에게 주거공간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노인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노인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서 주거환경을 바꿀 경우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 지역사회에서 상징적 지위의 상실, 그리고 새로운 이웃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노후생활이 동일한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건강한 주거방향으로 ‘Ageing in Place’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가 진행함에 따른 생활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공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과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연구로 노인들의 주거요구나 생활경험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노인의 행태적 관점에서 노인주거로의 적합한 주거환경 리모델링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유경두, 2006),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시설의 계획방향을 제시한 연구(문희정, 2003) 그리고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및 생활 특성과 실태조사(김영주 외, 2006)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노후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노인의 주택문제가 신규주택으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라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반적인 노인의 노후생활에서의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

* 주저자/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강사
(unojune@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전은정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령화율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생활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더 이상 획일적인 주거계획은 노인들의 주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노인주거를 위한 노인의 주생활 전반의 생활변화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角田愛美 외,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기가 길어지고 노후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주거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노인가구의 노후 생활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단계[1]를 기본틀로 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주거공간구성, 주거환경구성을 주거환경변인으로 구성하여 노후 생활실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령의 기준인 60세는 국민연금 수급, 정년퇴직의 시기, 노인복지시설이용 등에 있어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고려되었다.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고령특성에 따른 표집에서의 접근성의 제약 및 다양한 생활수준과 거주특성을 고려하여 배포자가 노인교실, 평생교육원, 취미생활프로그램 등의 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을 의뢰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을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노인들을 위해 훈련된 조사보조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 총 475부를 배포하여 443부를 회수(회수율 93.3%)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거환경실태를 파악하고자 60세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소유의 노인으로 한정하여 25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주거환경의 개념과 변인

2.1 주거환경의 개념

주거환경은 주택을 둘러싼 여러 조건의 총합적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주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물리적 조건들을 포함한 유형무형의 외부적 조건, 좁은 의미로는 주택 그 자체 또는 주택의 내·외부와 관련된 여러 조건(윤정숙, 2002)으로 이해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인 노인의 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 및 생활장소를 모두 포함하여 주거환경으로 정의하였다. 노인의 경우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능력 저하를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주거조건과 환경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주거환경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수용하고 그들의 가치와 행동,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이경희 외, 1993) 노인의 전반적인 노후생활에 만족을 해 나갈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2 주거환경 변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변인으로 생활의식, 주거공간구성, 주거환경구성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건강상태와 고령화에 따라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George, 1991; 이명희, 2003; 박경옥, 2005) 변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의 의존성에 대해 경제의존, 심리의존, 신체의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녀와의 동거태도, 노후의 중요한 생활요소, 건강상태를 구체화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인은 고령화 진행에 따라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서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허병리, 1997; 홍숙자, 2002). 따라서 주거공간구성으로 주거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거주중심공간과 주거 내에 요구되는 추가공간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침실은 부부공간 및 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나만의 방은 취미 및 개인을 위한 사적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였다. 이는 노인은 고령화됨에 따라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의 확보(홍숙자, 2002)가 나타남에 따라 노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상실과 가정에서의 역할 축소에 의한 상실감을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역할상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배나래 외, 2009; 정경희 외, 2007) 주거환경구성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관계를 지속시켜주고 노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노후생활에서 약화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서비스를 선행연구(유병선, 2005; 이인수 외, 2008; 조성희 외, 2005; 홍숙자, 2002; 강병근, 1999)를 통해 9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표 1. 주거환경 변인

분류	내용	
생활의식	의존인식	경제의존 / 심리의존 / 신체의존
	자녀동거태도	
	노후중요생활요소	
	건강인식	
주거공간구성	주거이동여부	
	공간구성	거주중심공간 / 추가요구공간
	요구지원서비스	
주거환경구성	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유형 / 활동이유 / 활동장소
	생활시설이용	
	노후중요주거환경요소	

1) 노인집단의 체계화를 위해 통계청의 사회인구학적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은퇴를 맞이하는 노인의 연령인 60세부터 5세 간격으로 고령단계1(60세-64세), 고령단계2(65세-69세), 고령단계3(70세-74세), 고령단계4(75세-79세), 고령단계5(80세 이상)로 분류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항목		고령단계1 60-64세	고령단계2 65-69세	고령단계3 70-74세	고령단계4 75-79세	고령단계5 80세이상	전체
연령		94(36.3)	78(30.1)	47(18.1)	29(11.2)	11(4.2)	259(100.0)
성별	남성	27(28.7)	39(50.0)	19(40.4)	14(48.3)	3(27.3)	102(39.4)
	여성	67(71.3)	39(50.0)	28(59.6)	15(51.7)	8(72.7)	157(60.6)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학력	중학교이하	12(12.8)	11(14.1)	6(12.8)	8(27.6)	5(45.5)	42(16.2)
	고등학교	37(39.4)	35(44.9)	19(40.4)	10(34.5)	4(36.4)	105(40.5)
	대학교이상	45(47.9)	32(41.0)	22(46.8)	11(37.9)	2(18.2)	112(43.2)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가족구성	부부	52(55.3)	64(82.1)	36(76.6)	13(44.8)	5(45.5)	170(65.6)
	혼자거주	7(7.4)	2(2.6)	5(10.6)	8(27.6)	4(36.4)	26(10.0)
	자녀동거	35(37.2)	12(15.4)	6(12.8)	8(27.6)	2(18.2)	63(24.3)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직업	있음	24(25.5)	18(23.1)	13(27.7)	3(10.3)	0(0.0)	58(22.4)
	없음	70(74.5)	60(76.9)	34(72.3)	26(89.7)	11(100.0)	201(77.6)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소득	200만원미만	29(30.9)	28(35.9)	15(31.9)	14(48.3)	6(54.5)	92(35.5)
	200만원이상	65(69.1)	50(64.1)	32(68.1)	15(51.7)	5(45.5)	167(64.5)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항목		고령단계1 60-64세	고령단계2 65-69세	고령단계3 70-74세	고령단계4 75-79세	고령단계5 80세이상	전체
소득원(다중응답)	경제활동	72(77.4)	37(48.1)	25(54.3)	5(17.28)	1(9.1)	140(54.7)
	자녀지원	12(12.9)	7(9.1)	6(13.0)	12(41.4)	4(36.4)	41(16.0)
	부동산임대료	9(9.7)	17(22.1)	10(21.7)	8(27.6)	2(18.2)	46(18.0)
	국민연금・퇴직금	26(28.0)	36(46.8)	17(37.0)	7(24.1)	4(36.4)	90(35.2)
	저축・보험	18(19.4)	11(14.3)	7(15.2)	5(17.2)	6(54.5)	47(18.4)
	전체	93(100.0)	77(100.0)	46(100.0)	29(100.0)	11(100.0)	256(100.0)
거주기간	5년미만	27(28.7)	20(25.6)	13(27.7)	8(27.6)	3(27.3)	71(27.4)
	5-10년미만	30(31.9)	20(25.6)	19(40.4)	9(31.0)	4(36.4)	82(31.7)
	10-15년미만	19(20.2)	15(19.2)	4(8.5)	6(20.7)	2(18.2)	46(17.8)
	15-20년미만	15(16.0)	18(23.1)	4(8.5)	3(10.3)	1(9.1)	41(15.8)
	20년이상	3(3.2)	5(6.4)	7(14.9)	3(10.3)	1(9.1)	19(7.3)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주택규모	66㎡(20평)이하	11(11.8)	15(19.2)	12(25.5)	8(28.6)	3(27.3)	49(19.1)
	99㎡(30평)	40(43.0)	41(52.6)	14(29.8)	9(32.1)	5(45.5)	109(42.4)
	132㎡(40평)	25(26.9)	13(16.7)	10(21.3)	9(32.1)	2(18.2)	59(23.0)
	165㎡(50평)이상	17(18.3)	9(11.5)	11(23.4)	2(7.1)	1(9.1)	40(15.6)
	전체	93(100.0)	78(100.0)	47(100.0)	28(100.0)	11(100.0)	257(100.0)

노인의 노후생활에서 사회적 역할상실과 사회생활 영역의 축소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여가 및 사회활동으로 친목활동, 자기개발활동, 건강활동, 여가 및 문화활동, 경제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의 7항목(윤종률, 2005; 정병은 외, 2009; 양민희, 2009; 보건복지부, 2008)과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20항목(신영숙, 1996; 이준민 외, 2005; 조경연구회, 1997), 노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주거환경요소로 주변환경조건, 주택투자자치성, 대중교통접근편리성, 여가・문화시설접근편리성, 편의시설접근편리성, 의료시설접근편리성, 종교시설접근편리성, 이웃과의 유대감의 8항목(김소희, 2009; 성기영, 2007)을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하여 표 1과 같이 주거환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 가족구성, 직업, 소득, 소득원, 거주기간, 주택규모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표 2>. 조사대상의 연령은 고령단계1이 36.3%, 고령단계2가 30.1%로 60대 비율이 높았으며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67.5세(SD=6.0), 성별은 여성이 60.6%, 남성이 39.4%로 전체 고령단계에서 여성의 표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졸업이상이 43.2%, 고등학교졸업이 40.5%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83%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은 노인부부가구가 65.6%로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단계1에서는 부부가구 외의 가족동거가 나타났고 고령단계2와 고령단계3에서는 노인부부가구가 높고, 고령단계4부터는 노인부부가구 외에 혼자거주와 가족동거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7.6%로 높게 나타났고 고령단계3까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54.7%, 국민연금 및 퇴직금이 35.2%의 비율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64.5%, 200만원미만이 3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2]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2) 2009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183만원(전국가구의 53%수준)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0 고령자통계).

파악되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5-10년이 31.7%, 5년 미만이 27.4%으로 나타났고, 주택규모는 30평형대가 42.4%, 40평형대가 23.0%로 파악되었다.

3.2 생활의식

노인의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경제의존, 심리의존, 신체의존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표 3>. 경제의존에서 전반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존 비율이 높고 고령단계4 이후에서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의존에서는 초기 고령단계부터 배우자의존과 본인의존 외에 자녀의존 인식이 높고 고령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체의존에서는 고령단계 전반적으로 배우자, 본인 순서로 고령단계2 이후에는 자녀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의존의식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경제의존	본인	50(53.2)	47(60.3)	32(68.1)	13(44.8)	7(63.6)	149(57.5)
	배우자	56(59.6)	38(48.7)	17(36.2)	8(27.6)	3(27.3)	122(47.1)
	자녀	6(6.4)	9(11.5)	7(14.9)	13(44.8)	4(36.4)	39(15.1)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심리의존	본인	30(32.3)	25(32.5)	18(39.1)	7(25.0)	5(45.5)	85(33.3)
	배우자	66(71.0)	58(75.3)	30(65.2)	9(32.1)	5(45.5)	168(65.9)
	자녀	17(18.3)	22(28.6)	17(37.0)	19(67.9)	5(45.5)	80(31.4)
	전체	93(100.0)	77(100.0)	46(100.0)	28(100.0)	11(100.0)	255(100.0)
신체의존	본인	46(50.0)	33(44.0)	25(54.3)	11(39.3)	5(45.5)	120(47.6)
	배우자	53(57.6)	48(64.0)	29(63.0)	10(35.7)	5(45.5)	145(57.5)
	자녀	11(12.0)	18(24.0)	16(34.8)	14(50.0)	4(36.4)	63(25.0)
	전체	92(100.0)	75(100.0)	46(100.0)	28(100.0)	11(100.0)	252(100.0)

노인의 의존인식에서 경제의존에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고령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자녀의존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인식이 낮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계청(1998, 2002) 조사에서도 가족이 노인의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심리의존에서는 고령화됨에 따라 본인, 배우자 의존은 낮아지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체의존에서도 고령화됨에 따라 본인의존은 감소하고 배우자의존은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자녀의존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동거태도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고령단계3 이전에서는 자녀의 학업 및 직장생활 등의

표 4. 자녀동거태도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본인독립불가능	7(15.2)	1(5.3)	4(20.0)	3(18.8)	2(66.7)	17(16.3)
같이살고싶어서	5(10.9)	2(10.5)	3(15.0)	4(25.0)	1(33.3)	15(14.4)
건강이좋지않아서	1(2.2)	0(0.0)	2(10.0)	1(6.3)	1(33.3)	5(4.8)
자녀독립불가능	12(26.1)	6(31.6)	4(20.0)	0(0.0)	0(0.0)	14(25.9)
자녀부담덜기위해	6(13.0)	5(26.3)	5(25.0)	6(37.5)	0(0.0)	22(21.2)
자녀직장학업때문	17(37.0)	4(21.1)	0(0.0)	3(18.8)	0(0.0)	24(23.1)
자녀가사·손자녀양육도움	9(19.6)	2(10.5)	5(25.0)	2(12.5)	0(0.0)	18(17.3)
전체	46(100.0)	19(100.0)	20(100.0)	16(100.0)	3(100.0)	104(100.0)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녀의 가사도움과 손자녀 양육에 의해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반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노후의 중요한 생활요소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경제적여유	72(76.6)	68(87.2)	37(78.7)	17(58.6)	7(63.6)	201(77.6)
신체적건강	64(68.1)	64(82.1)	39(83.0)	23(79.3)	7(63.6)	197(76.1)
심리적안정	29(30.9)	21(26.9)	18(38.3)	4(13.8)	5(45.5)	77(29.7)
가족생활	39(41.5)	38(48.7)	24(51.1)	9(31.0)	4(36.4)	114(44.0)
친구및지인과의관계	20(21.3)	24(30.8)	11(23.4)	3(10.3)	0(.0)	58(22.4)
죽음준비	5(5.3)	7(9.0)	6(12.8)	4(13.8)	1(9.1)	23(8.9)
봉사활동	12(12.8)	12(15.4)	3(6.4)	3(10.3)	0(.0)	30(11.6)
종교지님	16(17.0)	15(19.2)	12(25.5)	7(24.1)	4(36.4)	54(20.8)
사회활동	13(13.8)	2(2.6)	4(8.5)	2(6.9)	0(.0)	21(8.1)
취미활동및자기개발	35(37.2)	27(34.6)	9(19.1)	3(10.3)	4(36.4)	78(30.1)
유지관리용이한주택	10(10.6)	6(7.7)	5(10.6)	0(.0)	2(18.2)	23(8.9)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노후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모든 고령단계에서 경제적 여유, 신체적 건강, 화목한 가족생활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고령단계1과 고령단계2에서 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여유를 신체적 건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성에서 자녀의 독립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적 여유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고령단계3 이전에서는 취미활동 및 자기개발, 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심리적 안정,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고령화될수록 건강함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건강하지 않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특히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고령단계3을 기준으로 건강함에 비해 건강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합계
건강함	61(64.9)	45(57.7)	19(40.4)	5(17.2)	2(18.2)	132(51.0)
건강안함	33(35.1)	33(42.3)	28(59.6)	24(82.8)	9(81.8)	127(49.0)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	259(100.0)

3.3 주거공간구성

노인의 주거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7>. 고령단계 전반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거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불편해진 신체기능을 일상생활에서 보조받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함을 감안하면 생활보조기능이 보완되고 편리한 주택으로의 이주도 고려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표 7. 주거이동 여부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현재주택	64(68.1)	48(62.3)	28(59.6)	18(64.3)	6(60.0)	164(64.1)
새로운 주택	30(31.9)	29(37.7)	19(40.4)	10(35.7)	4(40.0)	92(35.9)
전체	94(100.0)	77(100.0)	47(100.0)	28(100.0)	10(100.0)	256(100.0)

주거 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중심공간과 추가로 요구되는 공간을 살펴보았다<표 8>. 노인이 주거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살펴보면 모든 고령단계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거실, 침실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주거 내에서 중심공간은 고령단계 전반에 걸쳐 거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단계가 진행함에 따라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고령기에 들어선 노인은 사회활동 범위가 축소되어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주로 TV시청, 라디오청취, 독서 등의 정적인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거실과 침실을 중요한 거주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거 내에서 추가하고 싶은 공간을 살펴보면, 초기 고령단계부터 나만의 방에 대한 추가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은퇴시기에 접어든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감소됨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원하게 되며 개인공간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침실은 취침을 위한 공간으로 개인공간은 취미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노후생활에서도 생활행위에 따른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이 파악되었다.

표 8. 주거공간 태도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중심공간	침실	17(19.3)	6(8.0)	6(13.3)	10(35.7)	3(27.3)	42(17.0)
	거실	60(68.2)	61(81.3)	27(60.0)	15(53.6)	7(63.6)	170(68.8)
	나만의 방	11(12.5)	8(10.7)	12(26.7)	3(10.7)	1(9.1)	35(14.2)
	전체	88(100.0)	75(100.0)	45(100.0)	28(100.0)	11(100.0)	247(100.0)
추가공간	침실	4(6.2)	2(3.3)	4(11.1)	7(28.0)	2(28.6)	19(9.8)
	거실	11(16.9)	21(34.4)	12(33.3)	4(16.0)	2(28.6)	50(25.8)
	나만의 방	35(53.8)	21(34.4)	11(30.6)	8(32.0)	1(14.3)	76(39.2)
	베란다	15(23.1)	17(27.9)	9(25.0)	6(24.0)	2(28.6)	49(25.3)
	전체	65(100.0)	61(100.0)	36(100.0)	25(100.0)	7(100.0)	194(100.0)

표 9. 요구지원서비스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가사지원	12(14.5)	12(16.0)	7(14.9)	6(23.1)	2(20.0)	39(16.2)
건강관리 지원	54(65.1)	57(76.0)	36(76.6)	17(65.4)	5(50.0)	169(70.1)
생활지원	11(13.3)	5(6.7)	2(4.3)	2(7.7)	0(.0)	20(8.3)
주거관리 지원	18(21.7)	8(10.7)	10(21.3)	4(15.4)	2(20.0)	42(17.4)
외출지원	3(3.6)	1(1.3)	1(2.1)	1(3.8)	2(20.0)	8(3.3)
취업지원	14(16.9)	5(6.7)	4(8.5)	1(3.8)	0(.0)	24(10.0)
노인보호	7(8.4)	9(12.0)	8(17.0)	7(26.9)	1(10.0)	32(13.3)
재활지원	6(7.2)	11(14.7)	9(19.1)	2(7.7)	4(40.0)	32(13.3)
사회복지	26(31.3)	25(33.3)	14(29.8)	7(26.9)	5(50.0)	77(32.0)
전체	83(100.0)	75(100.0)	47(100.0)	26(100.0)	10(100.0)	241(100.0)

노후생활에 요구되는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고령단계 전반에 걸쳐 건강관리지원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지원 서비스의 요구도 파악되었다<표 9>. 고령단계 3이전에서는 건강관리지원과 사회복지지원 외에 주거관리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지만, 고령단계가 높아질수록 가사지원과 노인보호지원, 재활지원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되면서 신체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활동제약이 증대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른 요구로 고령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4 주거환경구성

노후생활에서의 여가 및 사회활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고령단계 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건강활동, 친목활동, 여가・문화활동, 종교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고령단계3 이전에서는 모든 여가 및 사회활동 항목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기개발활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단계3 이후에서는 여가 및 사회활동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건강을 위한 활동과 친목활동, 여가・문화활동, 종교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수준이 낮은 편이나 연고에 근거한 친목이나 사교단체 참여율이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임이 파악되었다(매일경제, 2009. 12. 21). 특히 자기개발활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동이 현저히 저조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여가 및 사회활동 유형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친목활동	46(48.9)	47(60.3)	21(44.7)	10(34.5)	3(27.3)	127(49.0)
자기개발활동	38(40.4)	20(25.6)	16(34.0)	2(6.9)	1(9.1)	77(29.7)
건강활동	56(59.6)	52(66.7)	38(80.9)	21(72.4)	8(72.7)	175(67.6)
여가・문화활동	26(27.7)	27(34.6)	18(38.3)	7(24.1)	4(36.4)	82(31.7)
경제활동	21(22.3)	15(19.2)	10(21.3)	3(10.3)	0(.0)	49(18.9)
봉사활동	10(10.6)	18(23.1)	14(29.8)	2(6.9)	1(9.1)	45(17.4)
종교활동	27(28.7)	26(33.3)	11(23.4)	5(17.2)	3(27.3)	72(27.8)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여가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고령단계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건강유지가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고령단계3 이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건강유지 이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령단계3 이후에는 건강유지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여가 및 사회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교류내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것과 노후생활의 건강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여가 및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완화시키는 역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서도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가 및 사회활동 장소 영역의 개선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표 11.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이유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사람들과의만남	59(62.8)	48(61.5)	25(53.2)	16(55.2)	8(72.7)	156(60.2)
새로운지식습득위해	26(27.7)	19(24.4)	11(23.4)	1(3.4)	1(9.1)	58(22.4)
정보교환위해	21(22.3)	14(17.9)	15(31.9)	4(13.8)	0(.0)	54(20.8)
건강유지위해	42(44.7)	46(59.0)	36(76.6)	18(62.1)	8(72.7)	150(57.9)
스트레스해소위해	24(25.5)	14(17.9)	18(38.3)	7(24.1)	3(27.3)	66(25.5)
규칙적인생활위해	19(20.2)	24(30.8)	16(34.0)	6(20.7)	0(.0)	65(25.1)
보람느끼기위해	28(29.8)	29(37.2)	22(46.8)	2(6.9)	2(18.2)	83(32.0)
소속감지니기위해	17(18.1)	13(16.7)	9(19.1)	3(10.3)	0(.0)	42(16.2)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표 12. 여가 및 사회활동 장소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공원	13(14.1)	25(32.9)	18(38.3)	7(24.1)	2(18.2)	65(25.5)
주민센터	10(10.9)	6(7.9)	3(6.4)	0(.0)	1(9.1)	20(7.8)
학원	4(4.3)	7(9.2)	3(6.4)	1(3.4)	0(.0)	15(5.9)
문화센터	34(37.0)	22(28.9)	12(25.5)	5(17.2)	0(.0)	73(28.6)
경로당	3(3.3)	3(3.9)	3(6.4)	2(6.9)	3(27.3)	14(5.5)
노인복지관	3(3.3)	3(3.9)	5(10.6)	7(24.1)	3(27.3)	21(8.2)
백화점	27(29.3)	11(14.5)	12(25.5)	3(10.3)	0(.0)	53(20.8)
스포츠센터	24(26.1)	15(19.7)	12(25.5)	3(10.3)	0(.0)	54(21.2)
음식점	12(13.0)	9(11.8)	7(14.9)	1(3.4)	1(9.1)	30(11.8)
등산골프시설	25(27.2)	31(40.8)	6(12.8)	4(13.8)	2(18.2)	68(26.7)
노인대학	3(3.3)	2(2.6)	11(23.4)	11(37.9)	3(27.3)	30(11.8)
종교시설	26(28.3)	28(36.8)	15(31.9)	5(17.2)	3(27.3)	77(30.2)
자원봉사활동	3(3.3)	6(7.9)	0(.0)	0(.0)	0(.0)	9(3.5)
주택내	11(12.0)	17(22.4)	5(10.6)	1(3.4)	3(27.3)	37(14.5)
전체	92(100.0)	76(100.0)	47(100.0)	29(100.0)	11(100.0)	255(100.0)

여가 및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를 살펴보면, 고령단계 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공원, 문화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3] 등으로 나타났다<표 12>.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장소 중에서 공원에서의 활동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건강하고 정서적인 생활의 향상을 기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령단계3 이전에는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산골프시설에서 이루어지나 고령단계3 이후에서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이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나 시설장소의 접근성에 따라 여가 및 사회활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령단계가 높아질수록 주거지역 근처의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특히 경로당을 중심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의 여가 및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후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고령단계 전반적으로 생활용품구매시설(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병원, 대중교통, 종교시설과 같은 생활시설 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표 13>. 고령단계3 이전에는 생활용품구매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와 등산골프시설 등의 활동적인 여가시설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고령단계3 이후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병원과 약국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공원과 종교시설 등의 이용이 나타났다.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고령단계 전반적으로 주변환경의 조건, 대중교통 접근의 편리성, 의료시설 접근의 편리성, 편의시설 접근의 편리성, 여가・문화시설 접근의 편리성이 중요한 주거환경요소로 파악되었다<표 14>. 고령단계3 이전에는 주택의 투자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과 이웃과의 유대감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고 고령단계4 이후에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생활시설에서 노인의 경우 거주지와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체력적으로 이동의 부담이 적은 이동수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3. 생활시설 이용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슈퍼마켓	29(30.9)	16(20.8)	17(36.2)	8(27.6)	2(18.2)	72(27.9)
대형마트	51(54.3)	24(31.2)	15(31.9)	5(17.2)	6(54.5)	101(39.1)
백화점	33(35.1)	13(16.9)	9(19.1)	4(13.8)	0(.0)	59(22.9)
재래시장	25(26.6)	25(32.5)	12(25.5)	10(34.5)	6(54.5)	78(30.2)
음식점	19(20.2)	17(22.1)	11(23.4)	5(17.2)	0(.0)	52(20.2)
은행	26(27.7)	14(18.2)	9(19.1)	7(24.1)	4(36.4)	60(23.3)
약국	14(14.9)	9(11.7)	6(12.8)	6(20.7)	2(18.2)	37(14.3)
병원	22(23.4)	20(26.0)	18(38.3)	10(34.5)	8(72.7)	78(30.2)
등산골프시설	21(22.3)	24(31.2)	5(10.6)	3(10.3)	3(27.3)	56(21.7)
스포츠센터	24(25.5)	12(15.6)	12(25.5)	4(13.8)	0(.0)	52(20.2)
찜질방	8(8.5)	11(14.3)	8(17.0)	5(17.2)	0(.0)	32(12.4)
이미용실	13(13.8)	7(9.1)	4(8.5)	3(10.3)	0(.0)	27(10.5)
주민센터	7(7.4)	6(7.8)	3(6.4)	0(.0)	0(.0)	16(6.2)
우체국	7(7.4)	5(6.5)	2(4.3)	1(3.4)	0(.0)	15(5.8)
세탁소	9(9.6)	5(6.5)	1(2.1)	2(6.9)	0(.0)	17(6.6)
복지관	3(3.2)	8(10.4)	2(4.3)	7(24.1)	1(9.1)	21(8.1)
공원	11(11.7)	25(32.5)	15(31.9)	9(31.0)	2(18.2)	62(24.0)
동네벤치	4(4.3)	6(7.8)	1(2.1)	1(3.4)	0(.0)	12(4.7)
대중교통	26(27.7)	31(40.3)	14(29.8)	6(20.7)	4(36.4)	81(31.4)
종교시설	19(20.2)	24(31.2)	12(25.5)	4(13.8)	3(27.3)	62(24.0)
전체	94(100.0)	77(100.0)	47(100.0)	29(100.0)	11(100.0)	258(100.0)

3)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말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8. 12. 31)

표 14. 노후중요주거환경요소 다중응답 N(%)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전체
주변환경조건	60(63.8)	53(67.9)	33(70.2)	14(48.3)	6(54.5)	166(64.1)
주택투자가치성	20(21.3)	17(21.8)	10(21.3)	2(6.9)	1(9.1)	50(19.3)
대중교통접근편리성	56(59.6)	49(62.8)	30(63.8)	13(44.8)	8(72.7)	156(60.2)
여가・문화시설접근편리성	34(36.2)	27(34.6)	18(38.3)	10(34.5)	4(36.4)	93(35.9)
편의시설접근편리성	45(47.9)	37(47.4)	20(42.6)	8(27.6)	4(36.4)	114(44.0)
의료시설접근편리성	45(47.9)	39(50.0)	30(63.8)	10(34.5)	8(72.7)	132(51.0)
종교시설접근편리성	13(13.8)	17(21.8)	7(14.9)	4(13.8)	2(18.2)	43(16.6)
이웃과의유대감	19(20.2)	19(24.4)	10(21.3)	3(10.3)	2(18.2)	53(20.5)
전체	94(100.0)	78(100.0)	47(100.0)	29(100.0)	11(100.0)	259(100.0)

4. 노인의 주거환경 특성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주거환경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인 주거환경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인의 주거환경 실태를 주거환경변인(생활의식, 주거공간구성, 주거환경구성)별로 살펴보고 이를 고령단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표 15>. 먼저 주거환경의 생활의식을 살펴보면, 의존인식, 자녀동거태도, 건강인식, 노후생활요소를 구체화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을 파악하였다. 의존인식에서 전반적으로 본인의존과 배우자의존이 나타나 노후생활에 대한 자립인식이 높은 반면 고령화에 따라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비율이 높음이 파악되었다. 노후생활요소에서 노인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함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태도에서 고령단계3 이전에서는 자녀가

표 15. 노인의 주거환경 특성

			고령단계1	고령단계2	고령단계3	고령단계4	고령단계5
일반특성	가족구성		부부 또는 부부+자녀	부부		부부 또는 혼자거주 또는 부부+자녀	부부 또는 혼자거주
생활의식	의존인식	경제의존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의존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의존		본인 또는 자녀 또는 배우자	
		심리의존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의존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의존하며 자녀의존이 시작됨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신체의존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의존	배우자 또는 본인에게 의존하며 자녀의존이 시작됨		자녀의존이 높고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의존	본인 또는 배우자의존 경향이 높고 자녀의존도 나타남
	자녀동거태도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여 부모에게 의존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기 시작된다.	자녀에게 부모가 의존
	노후중요생활요소		경제적 여유가 중요하며, 취미활동 및 자기개발과 인간관계를 중시함		신체적 건강이 경제적여유보다 중요시하기 시작함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여유는 노후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종교활동이 이루어짐	
	건강인식		건강함에 대한 인식이 높음		건강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	건강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 높음	
주거공간구성	선호거주유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선호거주가 지속되고 주거이동 의사도 나타남				
	거주중심공간		가족 공동공간에서의 생활이 중심이 됨		가족 공동공간 또는 개인공간에서의 생활이 이루어짐	가족 공동공간과 부부 공용공간인 침실이 생활의 중심이 됨	
	추가요구공간		개인공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가족 공동공간 및 개인공간 요구가 나타남		개인공간의 요구가 나타남	
주거환경구성	요구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또는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나타남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와 노인전용 지원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함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보조가 요구됨
	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유형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활동과 특정 모임집단에서의 교류관계가 형성되고 적극적인 취미활동이 이루어짐			건강활동과 친목활동이 계속 이루어짐	
		활동이유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건강을 위한 취미를 가지고 있음		사람들과의 교류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취미활동을 가짐		
		활동장소	실내외의 시설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짐		노인복지여가시설에서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함	노인복지여가시설에서의 주체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함	주거지에 가까운 복지여가시설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택에서의 생활이 증가함
	생활시설이용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이 주로 나타남	공원시설이용이 나타남		공원시설과 복지관을 이용함	병원시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
	노후주거환경요소		주변환경의 전반적인 조건이 중요시되며 주택의 투자가치와 이웃들과의 유대가 중요함			주변환경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함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의료시설과의 근접함이 중요함

부모에게 의존하고 고령단계3 이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부모의 상호의존관계의 비중이 달라졌다. 따라서 노인의 자립생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고령단계3을 전후로 생활의식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주거공간구성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과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따른 생활기능이 더욱 보완되어야 함이 파악되었다. 노인은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취미생활을 위한 개인공간에 대한 추가요구가 나타나 노후의 주거공간계획에서 노인 개개인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공간계획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이 파악되었다.

주거환경구성에서 노후생활에서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와 사회복지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고령화될수록 노인보호, 가사지원, 외출지원, 재활지원 등의 일상생활활동의 지원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여가 및 사회활동은 건강과 친목에 관련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짐에 따라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대중교통시설 이용의 중요성이 나타남으로써 노인의 주거환경을 계획함에 있어서 노후 생활을 지원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입지 및 교통연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노후주거환경에서 노인의 생활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린시설과 주거환경요소의 조성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기준인 고령단

계에 따라 그 특징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고령단계1은 고령기에 들어서는 단계로 노인의 사회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거환경도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부부가구 또는 부부+자녀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건강함에 대한 인식이 높고 노후생활에서 부부간의 의존의식이 강하다. 이 시기는 자녀의 학업 및 직장생활로 인해 아직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가족단란이 이루어지는 거실의 중요성이 높으며 직업으로부터의 은퇴 등의 이유로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자신만의 사적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이 시기는 건강과 관련된 활동,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취미활동 및 자기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활동이 생활시설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시설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단계2는 부부가구가 부부+자녀가구보다 높아지는 시기이나 부모와 자녀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를 의존하나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자녀를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고령단계1과 주거환경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휴식, 건강활동을 위한 공원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고령단계3의 가족구성형태는 고령단계2와 유사하게 부부가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강함이나, 생활시설이나 주거환경요구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의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노후의 중요한 생활요소로 이전의 단계와 달리 신체적 건강이 경제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기 시작하고, 건강함에 대한 인식에서도 건강함에서 건강하지 않음으로 달라지는 시기이다. 이에 점차적으로 주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개인 공간뿐 아니라 주거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동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 시기부터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에서의 이용도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노인사회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넓은 취미활동보다는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단계4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혼자거주하거나 본인의 신체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녀와 거주하게 되는 가족구성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본인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저조해지고 신체적으로 쇠약해짐에 따라 자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진다.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보다 개인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되며, 주거환경구성에서도 건강관리와 노인전용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건강활동이나 친목활동은 계속 이루어지며 자가운전보다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주거환경이 요구된다.

고령단계5에서는 노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환경의 적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강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시기이다. 그러나 가족구성에서 부부가구 또는 혼자거주가구로 노인이 지속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다양한 노인 일상생활 보조서비스, 응급비상연락 서비스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병원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의 편리함이 중요한 환경요소가 된다. 한편 여가 및 사회활동에서는 가벼운 취미활동과 친목교류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활동장소 및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환경변인별로 주거환경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단계에 따라 노인의 노후 생활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변인으로 생활의식, 주거공간구성, 주거환경구성으로 구체화하여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의식변화와 주거 내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공간뿐만 아니라 개인공간에 대한 요구가 파악되었다. 또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주거환경에서 노인의 생활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주택 및 지역사회의 시설 등의 물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령단계는 노인의 연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고령화됨에 따른 전반적인 주거환경 변화와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령기의 확장에 따라 노인 연령의 구분 기준이 다양해지고 노인을 인식하는 연령기준도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고령단계를 기본틀로 노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노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보완하여 고령단계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미나, 김혜승, 전성제(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2. 강병근(199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 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10), 3-14.
3. 김소희(2009), 노인의 주거환경 욕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지, 봄호(43), 157-182.
4. 김영주, 권오정, 박남희(2006),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실태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79-93.

5. 문희정(2003),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주거환경 특성과 요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박경옥(2005), 한국과 일본 노인의 의존성 및 의존성 영향 요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박남희, 최재순(2010), 노인가구의 주거현황 DB요소의 유형화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주거학회, 21(2), 69-76.
8. 배나래, 박충선(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9.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성기영(2008), 노인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신영숙(1996), 도시 가구의 근린시설 이용행태와 거주지환경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261-282.
12. 양민희(2009),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삶의 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유경두(2006),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유병선(2005), 노인공동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모델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윤종률(2005), 제6회 고령사회포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3-33.
16. 이가옥, 권중돈(1989), 노인가구의 형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14), 113-135.
17. 이경희, 윤정숙, 홍형옥(1993), 住居學槪說, 문운당.
18. 이명희(2003), 여성독거노인의 생활불안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이인수, 김미주, 박신영, 현외성(2008), 복지국가의 고령자 주거정책, 공동체.
20. 이준민, 신화경(2005), 중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61-172.
21. 이지숙(2004), 대전시 거주 노인이 선호하는 거주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6), 61-68.
22. 이현진, 박재승(2010),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시설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6(1), 55-63.
23. 전은정(2011), 고령자의 주거환경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 정경희, 이윤경, 이소정, 오영희, 손창균, 방효정, 유삼현(2007),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정병은, 이기홍(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953-970.
26. 조성희, 강나나, 전은정(2010), 공동주택 거주 고령자의 건강주거 인식특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0(6), 81-89.
27. 조성희, 이태경(2005), 예비노인의 노후상황별 주거환경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16(4), 9-16.
28. 조성희, 전은정(2009), 노인주거계획을 위한 노인가구의 고령기 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20(5), 113-122.
29. 최기호 편저(1997), 조경계획・설계자료집성Ⅱ: 단지시설, 조경연구회, 도서출판 조경사.
30. 허병리(1997), 고령화사회의 주거환경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한국주거학회지 8(3), 153-162.
31. 홍숙자(2002), 노년학 개론, 도서출판하우.
32. 角田愛美, 竹田喜美子, 番場美惠子, 伊佐淸繪. (2002), シルバーステージにおける家族構成の変化:在宅高齢者住宅における高齢者と家族の住生活に關する研究 その3, 日本建築學術講演梗概集, (5637), 241-242.
33. 番場美惠子・竹田喜美子(2003), シルバーステージからみた高齢者の近隣交流に關する研究:集合住宅団地GHにおけるケーススタディ, 日本家政學會誌, 54(6), 491-499.
34. 番場 美惠子, 竹田 喜美子(2005), 都市集合住宅居住の自立高齢者における「個」を中心とした住まい方の変容過程: シルバーステージからみた高齢期の居住環境に關する研究 その1, 社団法人日本建築學會,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592), 25-31.
35. George S.(1991), Measure of dependency: Their use in as assessing the need for residential care fir the elderly, Journal of Public Health Medicine, 13(3), 178-181.

투고(접수)일자: 2012년 3월 30일
수정일자: (1차) 2012년 7월 31일
(2차) 2012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13일